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람과 나눌을 베풀고 실현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6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6 (담당목사님)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4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6. 지난 이레 동안에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발 아래 엎디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아는 겸손한 마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고 근심을 삭일 줄 아는 참을성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이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며 그 어려움을 거드는 자비로운 마음, 악의 그림자와 가능성조차 두려워하는 순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늘 나라의 영원한 복이 아니면 바라지 않고 이 땅의 헛된 재물에 애착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행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2 ..... 인도자

♠ 교 독 문 ..... 25. 시편103편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429.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는데 ..... 다함께

성경봉독 ..... I. II. 민9:15-23 이춘희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II. 나아갈 때와 머물 때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놓인 걸림돌은 치워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불어넣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이제 거칠고 이기적이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와 같은 현실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화와 생명의 기운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1월 동호회 모임	성서의 평화(10) : 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랑!	기도 : 안종일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구성실 장로	강순배 권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안길상	박재실	박혜경	이형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중수	김훈동	박효선	백혜숙

##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 노염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형제들과 섞여 있는 동안에 인내와 오래 참음의 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고립하여 지내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덕이 상실됩니다. 사막의 동굴에서 조용히 사는 사나운 동물들은 누군가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을 때에만 광포함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고결한 성품 때문에 고요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내기 때문에 고요하게 생활할 뿐 내면에 정념이 가득한 사람은 누군가가 접근하여 도발할 때마다 독을 내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이나 무생물에게도 성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사막에서 살 때에, 꿀꿀들이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아서, 또는 나무를 빨리 베려는 데 벨 수 없어서, 또는 빨리 불을 붙여야 하는데 불이 붙지 않아서 화를 냈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나의 노염의 대상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었는데, 심지어 무생물을 향해서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표면적으로 노염을 표현하는 것을 삼갈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노여워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입을 통제하여 성난 말을 삼가는 것보다, 마음에서 원한을 깨끗이 제거하고 형제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편이 더 유익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노염의 뿌리를 뽑아버린다면, 더 이상 증오나 시기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요일3:15) 왜냐하면 그는 마음 속에서 미움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칼에 찔려 살해된 사람의 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미움에 찔려 흘린 피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에 따라 상이나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 공적을 판단하실 것이다” (집회서35:22)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

2:15-16)고 말합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마5:22)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유 없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염의 뿌리, 그 불꽃을 제거해야 하며, 마음속에 노염에 대한 핑계를 하나도 간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선한 이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화를 내지만, 곧 자신의 노염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염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우리에게는 분별의 빛도 없고 참된 판단의 보증도 없고 의의 안내도 없게 되며,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노염을 멀리 해야 합니다. 또 만일 우리가 최후 심판 때에 노염과 미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행한 극기나 물질을 부인한 것이나 금식과 철야 등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낙담에 관하여

다섯 번째로, 낙담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낙담의 마귀는 영혼의 영적 관상 능력을 흐리게 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형제들을 온유하고 긍휼하게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일에 대한 미움, 심지어 수도 서원 자체에 대한 미움을 주입합니다. 그는 영혼의 유익한 결단을 손상시키고, 인내와 끈기를 약하게 만들며, 영혼을 무감각하고 마비되게 하고, 낙심되는 생각들의 속박을 받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약한 마귀들과 싸워 물리치려면, 낙담의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좀이 옷에 구멍을 내고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이, 낙담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유익한 만남을 피하게 만들고 참된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예의바르고 화평하게 응대하는 태도를 버리게 합니다.

(계속) (존 카시안의 글)

## ■ 마/음/으/로/위/는/글

### 편 지

점심을 얻어먹고 배부른 내가  
배고팠던 나에게 편지를 쓴다.

옛날에도 더러 있었던 일,  
그다지 섭섭하진 않겠지?

때론 호사로운 적도 없지 않았다.  
그걸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내일을 믿다가  
이십 년!

배부른 내가  
그걸 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나는  
자네한테 편지를 쓴다네.  
(천상병)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이한림 김명희 홍순구 안홍숙 김혜권 백묘현 이봉옥 오자영 황성환  
강순배 권미숙

###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조항범 오현정 문금석 박병구 이정은 박준희 이기분  
김종문 지명주 이정은 이갑재 송임희

### 감사헌금:

김재홍 최희영 방문성 박혜경 김창원 정지은 조항미 최인환 오진훈  
노순옥 송동준 김진경 권미숙 김영한 곽혜자 박경원 조항범 오현정  
이재구 황선희 이증자

생일감사헌금: 조병주 김중수 박옥식

###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김철수 박옥식 무명1 (누계- 10,900,000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에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 활동으로 대신합니다. 교우들과의 친밀한 사귄의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름다운원로** : 수요일(22일) 오전 10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오후에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독일의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 편을 보겠습니다.
4. **총회** : 새롭게 구성되는 선교회의 총회가 다음 주일(26일)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모든 교인들이 각 선교회에 소속하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5. **영성 세미나** :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 세미나가 영성신학연구소 주최로 열립니다. 21일(화) 오후 5시,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 세미나실로 가지면 됩니다.
6. **공정거래커피** : 오늘부터 공정거래 커피(히말라야의 선물)를 제공합니다. 네팔의 가난한 커피 재배 농가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신앙실천** : 매일 한 두 차례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느8:10)이라 했습니다. 뜻을 세우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생깁니다.

\* 식당 봉사 :

\* 헌화 :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